

특별기고



김희수 LH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는 2010년 이후 제주로의 인구 열풍이 불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택수요가 높아졌으나, 공공부문의 신규 개발사업 부진으로 민간에 의한 소규모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교적 규제가 적은 도심 외곽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생활여건이 불량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준공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이 이루어지다 보니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더욱 어려워 졌다. 일례로 신혼부부에게 4억~5억짜리 미분양 주택을 사라고 한다면 10년 연봉을 한푼도 안써도 살까 말까 한다. 우리의 자녀가 5000만원 정도로 시작하여 5~10년안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제주 인구유입 급감과 청년층 이탈, 결혼기피 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주사회의 미래지향적 생각으로 서민의 고충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그러나 2006년 서귀포시에 혁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작년에 지정된 제주시 공공주택지구(10만8000㎡) 이외에는 이렇다 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도시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LH의 공공사업을 통해 도시공원 조성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활용할 경우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정책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서귀포시에 혁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작년에 지정된 제주시 공공주택지구(10만8000㎡) 이외에는 이렇다 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도시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LH의 공공사업을 통해 도시공원 조성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활용할 경우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정책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열린마당

“훈육도 노력이 필요해요”



김현지 초록우산 아동기자단-제주월랑초 6학년

최근 어린이 체벌에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나도 어린이 체벌에 대해 나의 생각을 밝히고 싶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물의 다른 점은 어른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어린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은 이런 어른을 보며 천천히 배우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며 커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훈을 냈고 “공부에 집중해야지!” 하면서 욕설과 책을 던졌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른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친구가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혼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잘못된 일에 훈육을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어린이들의 상처받기 무서운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나는 훈육에 있어 체벌이 잘 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체벌도 하나의 훈육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잘 못된 훈육이고 체벌이라고 생각한다. 어른마다 어린이마다 느끼는 마음과 감정은 다르다. 어린이들이 정말 잘 못했을 때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말해주고 타일러주면 좋겠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다. 무엇 이든지 노력하면 생각이 바뀌고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른들도 어린이들을 훈육할 때 조금 더 노력해서 고운 말로 훈육해주면 좋겠다.

뉴스-in

정기인사 한달, 현장선 업무 미숙지 여전

‘인사이동 변명’ 이제 그만 ○...지난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화 및 철저한 인계인수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미숙지로 혼란. 제주도의 A주무관은 자신의 업무 파악을 위해 예정된 실무협의회 일정을 미루는가 하면, B주무관은 전날 열린 공청회와 관련된 사업 일정을 문자 “부서 이동한 지 얼마 안돼서”라고 답변. 주변에서는 “인사이동 한달이 다된 시점에서 변명”이라며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쓴소리. 이소진기자

를 거쳐 지정할 예정.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 시설개선자금 우선 응 지원,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지정업소 홍보, 표창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한라산 훼손 심화, 보전방안 강구할 때

한라산 탐방로 훼손이 심각합니다. 한해 100만명이 한라산을 찾으면서 노면침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방객이 몰리면서 결국 한라산이 몸살을 앓기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8일 한라수목원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4차년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라산 탐방로가 탐방객들의 답압으로 인한 노면침식 등이 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답압으로 식생이 훼손된 구간과 토양은 물이 투과하기 힘든 지면으로 변해 비가 오면 토양 유실이나 노면침식을 불러오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노면침식으로 인해 탐방로 바닥 침식(세굴), 암반·뿌리 노출, 노폭확대 및 비탈붕괴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탐방로 250m 구간 내 훼손 빈도수가 5건 이상 나타난 비율을 보면 돈내코(46%)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성판악 탐방로는 19%, 관음사 탐방로 15%, 어리목 탐방로 12%, 영실 탐방로 8% 순으로 훼손됐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한라산은 국제보호지역이자 관광명소입니다. 문제는 한라산을 찾는 발길이 많아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탐방로 훼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판악의 경우 입구 주차장과 5·16도로변 주차대란이 반복되면서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라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탐방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방예약제를 도입하거나 입장료 징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한라산은 탐방예약제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다 국내·외에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입장료는 이미 2017년 하반기부터 징수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라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탐방객은 제한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 내놔야

2018년 출생통계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으며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기준 평균인 1.65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과 가임기(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에서 제주는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다소 나은 편입니다. 제주지역 조출생률은 7.3명,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17개 시·도중 각각 2위와 3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또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에서도 제주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32.76세로 전국 평균 32.80세와 비슷해지면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출산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들을 제대로 키워줄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주고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비혼을 선호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주가 큰 돈 없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일자리 구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당연히 출산율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종전과는 다른 획기적이고 대담한 출산율 제고 대책, 그리고 이와 연계된 보육, 일자리 대책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부고 문성석(현대자동차) 어머니 제주고씨 행자(향년 79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8일 20시 08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8월 30일(금) ▶발인일시: 2019년 8월 31일(토)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차: 애월읍 상가리 선영

부고 한정용(현대모비스 차장) 아버지 청주한공 재철(한라산오기피 대표·향년 73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9일 06시 15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8월 30일(금) ▶발인일시: 2019년 8월 31일(토)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부고 부동석(중문염장 대표·제주관광협회 부회장) 빙도 임설자(향년 81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9일 낮 12시 20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8월 31일(토) ▶발인일시: 2019년 9월 1일(일)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김녕가족묘지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윤화(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30일 아들 강대성 며느리 현혜란 대신 이인경 대현 김복희 대경 양순이 딸 강정자 김선배 춘자 박도진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껌질 잘 벗겨짐 생선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인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매매 시청 버스정류장에서 서쪽100미터지점 광양빌라 지하주차장 있음/즉시입주가능 4층건물에 2층, 내부매우 깨끗 금액: 일억오천만 연락처 010-9888-1155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